

화순군, 중국 하남성 동백현과 난 산업교류 업무협약 체결

현지 춘란 재배 동향 파악·수출 가능성 점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하남성 동백현과 춘란 중국 수출을 위한 난 산업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복규 군수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군의원 등 관계자 9명은 중국 호북성 수현과 하남성 동백현 두 곳을 방문해, 난 실과 난 판매장을 들며 중국 현지 춘란 재배 동향 파악과 화순군의 춘란 수출 가능성을 점검

했다.

하남성 동백현은 화순군과 난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난 상품 개발과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수출을 위한 난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난 상호 홍보 활동 지원에 대한 협약서에 사인했으며, 더불어 춘란 주요 산지인 호북성 수현과도 업무협약이 진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난의 향기를

중시하고, 한국은 향기보다 난의 화형과 뒷의 무늬가 강점이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 춘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수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중국 내 춘란 선호 품종을 파악하고 우리 군에 도입해 수출 품종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현재 화순군은 춘란 산업 육성으로 농촌 소득 증대와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기술 교육을 추진했으며, 춘란 우량 종묘 대량 증식을 위한 춘란 시설화 우스 신축 및 증식용 종묘 구매가 진행 중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춘란 중국 수출은 화훼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리 군 춘란 산업 육성으로 농촌 소득 증대와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담양, 생계급여 선정 기준 ↑

담양군이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 3천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 3천102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3천 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에서 2천cc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차상위계층 및 23년도 중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가족 관계 해체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권리 구제 및 긴급 지원 등을 연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성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2024년 나주시청 직장운동부 사이클, 육상팀의 신규 및 재계약 선수 입단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이클·육상팀에서 총 7명의 선수를 신규 영입 및 재계약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2024년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식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2024년 나주시청 직장운동부 사이클, 육상팀의 신규 및 재계약 선수 입단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이클·육상팀에서 총 7명의 선수를 신규 영입 및 재계약했다.

사이클팀에선 나윤서, 전미연 선수를 새롭게 영입했으며 김하은, 문수진 선수와는 연장 계약했다.

육상팀은 신소망, 김홍성, 마재현 선수가 나주에 새 동지를 틀었다.

이번 선수 영입과 재계약은 나주시청 직장운동부 경쟁력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클 김하은 선수는 지난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로 여자 사이클 국가대표로서 맹활약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아시아주니어 선

수권대회 5관왕에 빛나는 전남미용 고등학교 출신 주니어 국가대표 나윤서 선수와 또 다른 주니어 국가대표인 원희진 선수를 영입하며 막강 전력을 구축했다.

육상팀은 제103회 전국체전 2관왕을 훨씬 여자 육상 최강자 신소망 선수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약 중인 김홍성 선수를 영입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동철 기자

영광군, 2024 전남도 양대체전

공개행사 연출 용역 착수 보고회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및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성화봉송 등 공개행사 연출 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강종만 영광군수를 비롯해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과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양대체전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 등 연출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개·폐회식 주제는 '전남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큰 영광'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해가는 영광을 어제의 길, 오늘의 길, 내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나아갈 미래를 선보이는 영광의 이미지와 함께 대회의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군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행사와 협의해 연출안을 보완해 차

/이경률 기자

장성군, '청년센터' 건립 본격 추진

장성군이 청년 활동의 거점시설인 '청년센터' 건립을 새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모여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개발, 여가선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공간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장성에만 청년센터가 없어, 그간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청년센터 건립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청년센터 건립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위치'였다. 군은 접근성이 좋은 장성을 군민회관 인근에 부지(장성읍 영천리 1486-4,

787-9)를 확보해 청년들이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면적 1천690㎡, 건축면적 600㎡에 지상 2층 건물로 지을 계획이다. 청년소통공간, 예비창업공간, 공유주방, 다목적홀, 미디어 스튜디오 등을 갖춘다.

건립준비 상황은 순조롭다. 지난해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일찌감치 완료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10월경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인구정책이나 지역체 활성화 사업의 핵심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강조하며 "청년센터 건립을 필두로 사람이 모여드는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유광종 기자

